

보리 3만t 초과 생산...수급 안정 대책 마련

전남 5만t 생산 전국 최대 전국 12만t 수확 예상 2만t 약정 매입·소비촉진 나서

올해 보리가 3만t 가량 과잉 생산될 것으로 보이며 농협 전남지역본부에서 수급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 보리(조곡) 생산량은 5만t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생산량은 12만t을 예상했다.

전남본부는 올해 보리 시장수요가 9만t 정도임을 감안하면 3만t 가량 생산량이 초과한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전국 생산량(14만t·조곡)의 44.1%에 달하는 6만3391t이 생산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이다.

농협 관계자는 "올해 보리 생육기간에 기상여건이 나쁘지 않아 작황이 양호했다"며 "과잉 공급물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협 전남본부는 50여 개 농협과 연계해 보리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정부 보리수매제가 폐지된 뒤 대부분 보리 관련 사업은 농협과 주정회사 등에서 수급을 해결하고 있다.



박서홍(오른쪽 두번째)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이 지난 25일 영광 백수농협을 찾아 '2021년산 보리수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올해 전남본부의 보리 약정매입 예상량은 2만 1506t이다.

시·군별 약정매입 예상량은 해남 7198t, 영광 2720t, 강진 2394t, 장흥 2007t, 영암 1989t, 보성 1411t, 함평 983t, 나주 717t, 고흥 538t, 순천 412t, 목포·신안 403t, 장성 189t, 완도 166t, 화순 35t, 담양 28t 등이다.

전남본부는 보리 소비촉진 운동 등을 벌이며 과잉 공급물량을 소화하고 수급 안정에 힘을 기울인다.

박서홍 본부장은 "보리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비가 늘어야 한다"며 "전남 농협은 보리 소비촉진운동 등을 통해 소비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쌀에 비해 관심이 부족한 보리도 식량이라는

인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수매 현장에서 인명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왔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28일 '2021년 보리 재배면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삼도농협 찬찬찬 밀반찬 나눔 행사

홀몸 어르신·소외계층에 전달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광주 삼도농협이 지역에서 난 농산물로 반찬을 만들어 이웃에 전달했다.

지난 25일 삼도농협 저온저장고에서 열린 '찬찬찬 사랑의 밀반찬 나눔 행사'에는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삼도농협이 참여했다.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회원들이 직접 담긴 열무김치와 지역에서 생산된 가바(GABA)토마토가 광주지역 취약 계층 및 독거노인 등 200여 가정에 전달됐다.

'찬찬찬'이란 가득차다의 '찬', 반찬 '찬(饌)', 도울 '찬(贖)'을 합친 말이다. 농촌지역 고령화로 늘어나는 홀몸 어르신 및 소외계층에게 직접 만든 밀반찬을 배달해주는 농가주부모임의 대표적인 지역사회공헌활동이다.

강원구 광주본부장은 "지역사회의 홀몸 어르신이나 소외계층 등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는 농가주부모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농협도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득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몸도 마음도 지치는 요즘,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농가주부모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농식품유통교육원, 농식품마케팅대학 교육생 모집

다음달 14일까지 유통 경영인 등 3개 과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은 '2021년 농식품마케팅대학' 하반기 교육생을 다음 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마케팅대학은 농식품 산업을 선도하고 유통·수출 분야의 혁신을 이끌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반기에는 농식품 수출 마스터(5개월), 농산물 마케팅 전문가(5개월), 농식품 온라인 유통 경영인(5개월) 3개 과정을 모집한다.

교육은 오는 7월27일부터 12월9일까지 주 1회 5시간, 16~18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자사 마케팅 전략 수립·온라인 상품화 전략·유망기업 수출 전략 등을 강의하고, 각 과정별로 현장 견학 및 국내외 연수도 진행한다.

이번에 개편된 농식품 수출 마스터 과정은 교육생 소속업체에 유망 수출국가 진출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와 수출 상담회 기회를 제공한다.

온라인 유통 경영인과정은 쇼핑 라이브 등 최신 온라인 판매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과정별 성적 우수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공사 사장상 등이 주어진다. 교육원은 수료 후에도 교육생을 대상으로 농식품 유통 관련 최신 지식과 현장정보 등을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원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강의장 내 비말차단장치 설치, 전문 업체를 통한 주기적인 방역, 교육원 방문자 대상 열감지 카메라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며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400-3569-7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촌경제연구원, 농촌활성화 토론회 개최

내일 유튜브 실시간 중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농업·농촌 미래 주제 육성'과 '농촌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토론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위성곤, 이원택, 권철승, 김승남, 맹성규

서삼석, 여기구, 주철현, 최인호 국회의원이 주최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사)농어업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 전체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특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

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을 주제로 오는 29일을 시작으로 9월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열린다.

2차 토론회는 다음 달 14일 '농업과 농업인(농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진행되며 ▲3차 '기후위기·탄소중립시대 한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8월24일) ▲4차 '먹거리 보장 및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9월8일) 등이 펼쳐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몸에 좋은 양파 사고 농민들도 도와요"



문병우(오른쪽) 서광주농협 조합장이 지난 24일 농협 광주본부 앞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남 양파 소비를 홍보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서광주농협 양파 소비촉진 캠페인

도시형 농협인 서광주농협이 생산량이 늘어나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 전남 양파를 사들여 소비촉진에 나섰다.

서광주농협은 지난 24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농협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양파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문병우 서광주농협 조합장과 강형구 광주지역본부장, 이강안 광주영업부장, 유정기 광주검사국장, 한제규 노조위원장 및 서광주농협과 광주본부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서광주농협은 무안 양파를 구매해 이날 광주본부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비 촉진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모집합니다

▶ H. 010-2928-0202

시세 9억, 부동산

- ▶ 회사 정리 차원에서 그냥 드립니다.
 - ▶ 임야 29,455㎡(구 8910평), 전망 좋음
 - ▶ 대출 1억2천만원, 사채 1억, 승계 가능사
- 상담문의. 010-3605-5000